자원봉사

울림

2018 Vol.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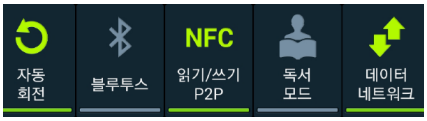
포항YMCA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스마트(NFC) 자원봉사 실적관리 시스템

▶ 실시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가능
▶ 자원봉사 기관 검색 및 모집정보 검색

스마트봉사활동 어플 사용방법

1. Play 스토어 포항스마트봉사활동 검색 후 어플 설치
2. 휴대폰 NFC 읽기기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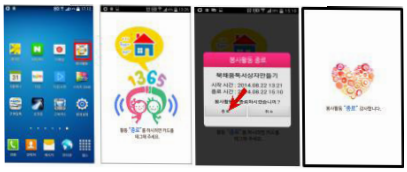
3. 스마트봉사활동 실행

4. 휴대폰 뒷면에 NFC카드 터치

5. 봉사활동선택

6. 활동시작 선택

7. 봉사활동 종료시 어플 시작 후 휴대폰 뒷면에 NFC카드 터치 및 종료



Contents

2018. 12 Vol.23

4 인사말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6 자원봉사자 탐방 I / 가위사랑봉사회 김옥이

8 자원봉사자 탐방 I / (사)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시지부 김세욱

10 자원봉사단체 탐방 I / 2017년 봉사왕 김선남

12 자원봉사단체 탐방 II / 사랑그리다

14 자원봉사단체 탐방 II / 이동고 온누리 사랑봉사단

16 기업자원봉사단 탐방 III/ 영남에너지서비스

18 기관 탐방IV/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20 자원봉사 사례수기 대상 / 박기영

24 포항행복마을

26 자원봉사거점센터

28 읍 면 동 지역자원봉사대 활동

30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36 가족자원봉사단 활동

38 아파트자원봉사단 활동

40 2018 자원봉사자 교육

43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활동

45 봉사단체 활동

46 청소년 이그나이트 대회

48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

51 언론에 비친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울림(통권 제23호)

발행처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발행인 권오성
발행일 2018년 12월
편집인 정보근 · 센터홍보단
디자인 경북참인쇄기획(284-4815)

이 소식지는 포항시의 예산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진의 아픔을 극복한 포항시 자원봉사님들은 감동의 주인공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의 5.4 포항지진은 포항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함께 포항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소장 역할을 맡아 함께한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 감동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봉사자님들의 모범적 활동을 보며 봉사자님들의 모범에서 많은 깨우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포항지진이 11월 15일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자세로 5.4 지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것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자원봉사센터도 권순남 지부장님과 권경옥 센터장님,

이상섭국장님과 직원, 봉사자님들은 '나눔과 봉사' 를 통해 5.4 지진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포항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감동과 함께 재해대책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항자원봉사센터는 포항지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범적 활동과 헌신의 결과로 대통령단체 표창를 받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님들께서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마음가짐으로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로 지진의 위기를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과제와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항지진을 극복한 경험과 지혜를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공유함으로 재난에 대비한 모범적 자원봉사센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사회가 급속하게 확장됨으로 맞는 노동의 위기 시대에 직면하게 되지만 포항시 자원봉사자님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봉사자님들의 모범을 배우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사자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권오성

사랑의 봉사
낮은 곳으로 임하는

가위사랑봉사회 김옥이 회장을 만나다.

옛날에는 이·미용사와 의사가 같은 직업이었다고 한다. 머리를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두발을 깎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용실 입구마다 설치돼 있는 백색, 청색, 홍색의 사인보드(Sign board)는 각각 붕대, 정맥, 동맥을 상징하는데 이는 이·미용실과 병원이 동거한 흔적이라고 한다. 머리를 손질하고 나면 기분이 산뜻해지는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는 걸 보면 이·미용이 아직도 의료 행위적 요소를 갖고 있음직도 하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이웃의 머리를 손질해 준다는 것, 그것은 삶에 지친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용 봉사는 단순히 사람의 머리 모양을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봉사이다.

2000년 1월부터 YWCA 이·미용봉사단을 결성하여 17명의 봉사자가 모여 활동하다 2018년 1월 가위사랑봉사단으로 봉사단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12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회원들은 포항에 거주하면서 실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미용사로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전문 기능사들이다.
미용실의 정기 휴무일을 이용 해도요양병원, 제일마디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9개소를 매월 2회 순회 봉사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거동이 불편하고 혼미한 노령의 어르신들을 이·미용 봉사하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침상에서 머리를 손질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서서 내내 가위질을 하다보면 환자의 심적 상태와 몸을 움추리는 돌발 사태

등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벗도 되어주면서 봉사하다 보면 예리한 가위 끝에 손가락 베임도 다반사라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며 봉사를 하게 된다.
봉사가 끝나는 시점에 기구들을 정리하고 손질할 때면 온 몸이 녹초가 되어버린다

특히 올해 여름은 예년과 달리 유난히 뜨거웠던 날이 많았는데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카락 때문에 선풍기 사용도, 창문의 개방도 여의치 않는 환경이지만 어르신들을 보면서 삶의 애환을 함께 느끼곤 했다고 말한다.

“순백의 흐트러진 머리를 손질하고 마무리하면 휠체어에 의지하고 돌아서며 웃음을 머금는 해맑은 어르신의 밝은 모습에서 잔잔히 퍼지는 희열의 감동이 힘든 봉사의 피곤함을 말끔히 사라지게 한다.” 고 김옥이 회장은 봉사의 의미를 술회한다.

김옥이 회장은 1983년 일본 미용대학을 졸업하고 후진양성과 더불어 38년 동안 이 ·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소외계층에 더 많은 이 · 미용 혜택을 주기 위해 재능 나눔 자원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가위사랑봉사단은 요양병원에서 환경이 열악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 미용 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가족들도 돌보기 힘들어 의탁할 만큼 노약한 환자들을 깔끔하게 머리를 단장할 때면 환자 본인 뿐 아니라 문병 온 가족이나 지인들이 더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간호사들이 귀뜸한다.
해도요양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 어르신이 이 · 미용 봉사를 받고 이틀 후 임종을 맞이해 장례식을 치른 후 유가족들이 찾아와 ‘자신들도 하지 못한 마지막 효도’를 대신 해 주어 너무나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한다.

김옥이 회장과 가위사랑봉사단은 사랑의 봉사 활동으로 성숙된 사회를 진일보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헌신의 중심에 있음과 동시에 자원봉사의 진수를 보여 준 귀감 사례로 우리 가까이 포항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숨은 사랑의 손길이 있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원영만

“독도 사랑” 색소포니스트 대니김

영일만의 검푸른 바다가 숲 속에서 어스름히 보이는 이 곳, 저녁 8시가 되자 오늘도 어김없이 색소폰의 감미로운 음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이곳은 환호해맞이공원의 남서쪽 산자락에 자리 잡은 ‘물의 공원’ 야외공연장에는 약속이나 한 듯 관객들이 들어차기 시작한다.

색소포니스트 대니김(김세욱)씨는 독도 사랑을 테마로 색소폰 공연을 올해로 15년 동안 이어가고 있으며 2,400회 공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연주가이기도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공유하고자 무료 연주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영일대해수욕장의 버스킹 공연장처럼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화려한 해변가를 지나 여남쪽 방향으로 한참 걸어야 하고 설상가상 약간의 등반을 해야 오를 수 있는 수고로운 곳에서 그는 어떻게 공연을 하게 되었을까?
그 시작은, 2004년 여름 포장마차들이 철거 된 후 썰렁한 바람이 불던 포항북부해수욕장이었다고 한다. 오고 가는 이들이 없어 썰렁한 해변가에서 대니김은 해변의 낭만을 되살리기 위해 색소폰 독주를 시작했다. 적막한 해변에 색소폰 선율이 울려 퍼지자, 그의 연주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음악이 계속 되기를 원하는 관객들의 요청에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물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꾸준히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

공연을 찾기 전에는 어떻게 공연이 2400회나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 궁금했다. 공연을 보는 도중에 2400회를 이어 온 원동력을 알게 되었고, 공연이 끝난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더 찾을 수 있었다.

특별히 '독도사랑' 을 연주회의 테마로 삼기 시작한 연유에 대해 묻자, 그는 담담히 자기 생각을 밝혔다. 정기 공연을 시작하게 된 당시에는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영유권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고, 평소 독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상 속에서 독도에 대하여 환기도 시키고, 관심도 이어가고 싶어 연주회의 주제를 '독도 사랑' 으로 정했다고 한다. 독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포항의 해변 가에서 '멀리서 응원이라도 하자' 하는 소박한 심정으로 연주를 시작 했었는데, "2016년에는 정말 독도에 가서 연주회를 했어요" 라며 뿌듯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그에게 독도는 연주 테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보였다.

연주회 초반에는 대니김이 선곡한 곡을 연주하고, 중반 이후부터는 관객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연주해주기 때문에 관객들의 신청한 곡은 취향만큼이나 제각각이다.

첫째로 대니김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가미 되어 있었다. 연주하기 전에는 신청 배경에 대해 질문하여 마치 연주자와 그 자리의 모든 관객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소통의 구도를 만들었고, 신청곡의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곡에 대한 해박한 배경지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요즘 청년세대의 문화로 치자면 아프리카TV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느낌이랄까. 중장년층이 즐길만한 건전한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 대니김은 오프라인 인기 BJ임에 틀림없다.

둘째로 대니김의 성실함에 놀랐다. 연주회가 끝나면 신청곡 영상을 다음 까페에 곡마다 구분하여 업로드하고, 신청곡을 적어낸 쪽지에 전화번호를 남기면 영상의 주소를 카톡으로 공유도 해주신다. 이 모든 과정은 공연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번거로워 하는 과정을 몹시 꾸준히 하고 계심을 까페에 있는 수많은 게시물과 방문객 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색소폰은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악기라고 한다. 대니김의 음악도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꾸준히 포항시민의 곁에서 좋은 연주 들려주시기를 기원하며 대니보이! 대니김 김세욱씨와 함께 하는 앙상블팀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임혜진

나는 봉사가 즐겁습니다

4년째 봉사왕이 되었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것을 무려 4번이나 한 우리 지역의 특별한 봉사자 한 분을 만났다.

지난 9월17일, 북구 양덕동의 조그만 카페에서 김선남 봉사왕과 자리를 함께 했다.

남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한 탓일까? 외모만 보고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성격 또한 활달하고 무척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4번이나 봉사왕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짧고도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로 하고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게 사용해야지요, 이것이 봉사입니다. 별 다른 이유 같은 것은 없어요."

다음은 봉사왕 김선남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평소 주위에서 봉사왕이라고 부르거나 이런 타이틀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나요?

늘 봉사를 해왔기에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봉사왕이 되지 않았어도 저의 봉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봉사왕이 되기 위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한 어느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내 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 봉사, 보건소 혈압, 혈당검사, 무료급식 봉사 등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다른 봉사도 해보고 싶어요

– 남을 위한 일에 시간과 열정을 다 보내시다보면 가족들의 원망은 없나요?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이제는 가족 모두가 저를 이해하고 응원을 해줍니다. 가족의 이해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저의 이런 모습이 산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봉사활동을 권유하시는지요?

이웃들은 몰라도 친구들에게는 봉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봉사 후의 느낌이나 생각이 저와는 다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냥 제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한다면 좋겠지요.

– 현재 하고 계시는 여러 봉사활동 중 가장 보람이 있는 활동은?

봉사활동 그 자체가 다 의미있고 소중합니다. 그래도 보건소와 도서관 봉사활동이 좋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도서관 봉사활동하며 매번 느끼는 것인데 책을 보고 난 뒤 원래의 자리에 꽂아 두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가시든가요, 엉뚱한 곳에 갔다놓으면 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꼭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 봉사왕께서 생각하시는 봉사에 대한 정의와 생각은?

봉사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어떤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 마지못해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 실천하는 나의 곱고 착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어디선가에서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봉사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봉사는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대가를 바라지도 받지도 않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곧 행복입니다.

– 앞으로 이런 봉사는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국악을 배워보고 싶어요. 하모니카도 배우고 싶고요.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할까요. 또 한가지가 더 있다면 노인들에게 한글 공부 봉사도 해보고 싶네요.

–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시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가난해도 늘 이웃을 생각하시고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이웃을 보살피고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늘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나도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더 봉사활동에 열심히 인 것 같아요.

4년 연속 봉사왕 김선남님은 포항 연일 출신으로 이순의 나이를 넘겨서도 여전히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봉사왕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단 차성환, 김화경

『사랑, 그리다』를 만나다~

『사랑, 그리다』 봉사단을 처음 만난 건 4년전 이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낙후된 농촌마을을 찾아가 각기 재능을 활용해 침체된 마을분위기를 밝고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마을로 탈바꿈시켜주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진행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서 였다. 그때 여러 자원봉사단체들 속에 함께한 『사랑, 그리다』 벽화 전문 봉사단의 손길을 통해 노후 된 담벼락과 어둡던 시골길을 환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랑, 그리다』 벽화 전문 봉사단은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모범적인 봉사단이다.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봉사단체이기도 하다. 봉사활동 현장에 가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붓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가끔 부부나 사촌, 친구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벽화봉사에 참여한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매주 매달 매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벽화봉사는 더욱이 활동 자체가 만만한 봉사가 아니기에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다. 벽화그리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아이들과 체험을 하고자 오시는 분,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 봉사시간이 필요하여 오시는 분, 정말 봉사를 하고 싶어 오시는 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귀라님은 "봉사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봉사」 자체이어야 한다." 며 마음에서 우러나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야 의미도 있고 얻게 되는 기쁨도 크다고 하였다.

포항시 곳곳에는 『사랑, 그리다』의 손길이 닿아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포토존이 된 곳이 많이 있다. 단체명처럼 사랑을 그렸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사랑을 그리는 마음은?

김현국 회장은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봉사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땐 마음이 불편해 진다고 하였다. "군인들이 봉사하러 가면 점심 주먹밥, 물, 간식 등은 챙겨온다." 면서 우리가 봉사하러 가서 봉사를 받고 오지 않으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필히 버려도 되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본인이 마실 물 정도는 챙겨오며, 아이와 함께 오는 분들은 아이의 먹을거리는 가지고 오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봉사자를 배려하여 장갑, 방진복, 팔토시 등과 무수한 붓과 트레이를 준비하는데 모두 한번 사용하면 버려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용했던 것을 쓰는 경우가 없어서 장갑도, 방진복도, 붓도 새것을 쓰고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은 실로 페인트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하고 쓰레기도 줄이길 바랄뿐이라고 하였다.

♫사랑은 벽화로 그리세요~~♪

더울 땐 더위를 먹을 정도로 한낮 땡볕에서 혹은, 겨울엔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도록 바람을 맞으며 온 몸을 쓰며 해야 하는 작업이다.

어쩌다 더러운 벽을 만나면 먼지를 마시며 사포질을 해야하고, 실내작업을 만나면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쩌다 비가 오면 전부 다시 작업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날씨, 체력, 인내심이 필요한 봉사이기에 마음을 내어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였다.

『사랑, 그리다』 팀장 김미라님은 길을 가다 벽화봉사한 곳을 지나갈 때 "이거 나도 함께 참여한거야~" 라고 한마디 할 수 있고, 그 한마디가 스스로 뿌듯함과 감격을 안겨주는 만큼 『사랑, 그리다』도 힘내서 계속 기회를 만들 것이며 포항시내 구석구석 『사랑, 그리다』의 손길로 따뜻한 사랑이 묻어나고 행복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포항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기회를 만드는 것도 완성된 결과물로 만드는 것도 모두 봉사자분의 몫이 크다며 앞으로도 함께 오래도록 아름다운 포항시를 꿈꾸고 만들어 나갈수 있는 『사랑, 그리다』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단 전은주

『이동고 학생봉사단체 RCY를 찾아서』

폭염으로 연일 36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 여름 청소년 우수자원봉사동아리 포항이동고등학교 RCY를 방문하였다.
한창 수능공부로 정신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고3 학생들과 정승혜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특별히 잘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줘 고맙다고 하시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고 더불어 발전하는 청소년 봉사단체라고 하였다.

Q 먼저 RCY의 뜻이 무척 궁금한데요?

RCY 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고 3학년 남궁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RCY의 뜻은 Red Cross Youth를 줄인말로 청소년 적십자 단체를 뜻합니다. 어릴적 아버지를 따라 시작하게 된 봉사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친구들과 함께 RCY이라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내봉사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항시장상도 받을 만큼 참여범위도 커지고 성과도 있어 자부심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임현우 라고 합니다.
RCY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것 뿐인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의 삶에 새로운 추억을 하나하나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남을 돕는다기보다 나 스스로의 행복함이 더 커져서 진로를 적성에 맞게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Q 와우~ 정말 진로문제에 영향을 줄만큼 좋은 계기가 되었군요.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이고 봉사가 단순히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의 진로까지 연결된다니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RCY 봉사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요?

3학년 이나경 입니다. 저는 친언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학년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교내활동을 하는게 좋았고 그 덕분에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도 좋아져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RCY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직접 기자를 만나 강의도 듣고 현장체험도 하면서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기사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수능 공부를 한다고 활동이 저조하지만 대학을 가서도 꾸준히 쭉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3학년 이시찬 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 학습지도를 맡았었는데 배우는거랑 가르치는 입장을 경험해보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빵봉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아무나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바뀌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3학년 추동우입니다. 노인 분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어르신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즐거운 추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자, 이제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고등학교 RCY 지도교사 정승혜 입니다.
예전학교에 근무할 때 힘들고 어려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다 보니 하면할수록 기쁨을 주는 일 이란걸 느껴 혼자 하는 것 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학생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농촌봉사, 환경정화 등 어려운 일을 함께하다 보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동고등학교에 와서는 좀 더 체계적인 청소년적십자단체인 RCY를 창단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무료급식소봉사,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말벗 및 청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우리주변의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도 주면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강요가 아닌 학생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발적인 참여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이 자기의 미래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꿈을 이루고자 진로를 변화하는 학생도 있어서 대견하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연계되어 더 깊이 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끝없이 샘솟는 봉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동고 RCY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준 다섯 명의 학생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단 윤영희

"영남에너지서비스 행복나눔단"

영남에너지서비스 | SK E&S

포항시민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스를 공급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의 행복나눔단"은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가치 아래 "행복 나눔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수혜처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 복지증진, 아동교육 프로그램, 안전교육에 이르기까지 행복나눔을 지속 실천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행복나눔터는 1호점 포항YWCA, 2호점 장성지역아동센터, 3호점 무지개지역 아동센터 이며, 또한 포항YWCA 소망의 집 긴급구호차량 등의 운영비를 매월 정기후원하고 있으며, 향후 행복나눔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는 수시로 사회봉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정성 있는 봉사의 첫걸음은 모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봉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실천 하고 있다.

명절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기부를 10년넘게 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연탄과. 김장 나눔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우선지원하고, 김장은 홀몸어르신 또는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였다. 이 같은 봉사는 올해도 진행 예정이다.

지난 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임직원의 정성을 모아 특별 성금 7천만원을 기부하였고, '09년부터 1사1교 협약처인 신광중학교에 매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표창장과 졸업선물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는 운동화를 선물 하였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타이머콕 보급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타이머콕 100대 설치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였다.

전임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SK그룹 공동 결식아동/어르신 돕기 소액기부에도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영남에너지서비스 전임직원 모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매달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하천 만들기 일원으로 해수욕장 정화활동, 마장지 생태공원, 곡강천 생태공원을 중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하며, 지역의 생태계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함께 단순히 기부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기업 역시 지역민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 영남에너지는 지역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기부형 회사로서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하며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까지 보급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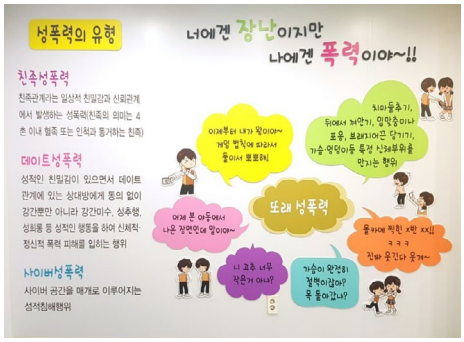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단 최종갑

BOY & GIRL

포항 청소년 성(性) 문화센터

포항 청소년 성 문화센터는?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포항 YMCA가 여성가족부와 포항시의 정책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전문 기관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치로 만들어졌다.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성문화 놀이터이다.



포항 청소년 성 문화센터 역사는?

2017 06.19.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 (포항 SAY-M) 4기 조직 결성

2016 03.21.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 (포항 SAY-M) 3기 조직 결성

01.01. 청소년성문화센터 재 위탁

2015 04.10.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 (포항 SAY-M) 2기 조직 결성

2014 11.28. 성폭력추방주간기념 경북권역 협동 캠페인 실시

03.20.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 (포항SAY-M) 1기
조직 결성
2013 01.01. 청소년성문화센터 재 위탁
2012 02.01.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로 명칭 변경
2010 09.10. 센터 개소식
03.25. (재) 포항 YMCA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체험관 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감으로 느낄수 있는 생명의 신비, 사춘기 꽃이 피다, 성적 자기의사 결정, 사회속의 성문화 등의 내용들로 체험 방식의 성교육 프로그램인 섹슈얼리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또는 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 계층 청소년을 찾아가 대상에 적합한 주제로 접근하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또 유아·아동·청소년, 장애청소년, 성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위기청소년, 부모·교사 성교육, 아동안전지킴이 교육 등 다양하게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전화·사이버·면접 등 성상담활동, 집단상담 및 응급지원 상담 진행 등 심리검사 실시도 하고 있다.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성 학습 문화를 청소년 스스로 만들고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청소년 성장 축제 등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지역축제 참가, 청소년 성문화 축제, 청소년 성장캠프, 성폭력 예방 캠페인),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를 위한 성교육자원활동가 양성 및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기관 인터뷰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정태영 센터장는 단순한 성관련 교육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 성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호기심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생명 존중교육을 시작으로 남들도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왜 남에게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인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성적 관련 행동들을 특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청소년 본인 스스로가 성문화교육,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성적의사 결정능력을 키우고, 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넘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체험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 상 : 아동, 청소년 5인이상 15명 이내
교 육 비 : 유치부 1,000원 / 초,중,고 청소년 무료 / 성인 2,000원
교육시간 : 60분~90분 [대상별 조정]
신청방법 : 전화접수 054-246-1714 [사전예약필수]

오시는 길 :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 76
포항 YMCA 4층[신흥동]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단 김정희

시 낭송 행복 나눔

박 기 영

60세 정년전 퇴직은 꿈에도 꾸지 않았던 내게 25여년 공무원생활을 허무는 거대한 재앙이 2013년 들이 닥쳤다. 청천벽력 같은, 내 귀를 의심하고 부인하고만 싶었던 유방암 3기 진단으로 암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중증 환자가 되어 짧지않은 암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내 몸에 언제 이런 암세포들이 기생을 했는지 그 암세포들이 서서히 내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는데도 평소 건강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바쁘다는 핑계로 미세하게 전해져오는 내 몸의 신호를 소홀히 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셈이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수술실로 향하기 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 그동안 인색했던 말 '사랑한다'를 문자로 급하게 두 아들에게 보냈던 일을~

암이라는 고통속에도 직업을 이어가길 희망했던 나는 수술전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먼저 시작했던 선 항암치료중에도 포기하지않고 꿋꿋하게 견뎌왔던 내 의지가 수술후 계속되는 두달여 동안 계속된 방사선 치료와 1년여 동안의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살았던 47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던 기간이었다. 힘든 치료로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던 기간에는 차라리 죽고만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었다. 하지만 그 막막하던 순간들에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아니라 나여서 다행이라 여기며 내가 힘들었던 만큼 가족들은 내가 겪는 고통으로 피해가길 바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구절을 되이고 또 되뇌이며 견뎌낸

기간이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있는 상태에서 나는 힘든 치료 기간에도 놓지 않았던 직업을 내려두고 질병 휴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서야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내려놓음과 비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할까 !

템플스테이로 지친 내 육신을 보듬으려 노력했고 전국의 사찰을 돌며 백팔배로 마음을 내려놓고 건강하게 해달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시간들, 정신 없이 달릴때는 보지 못했던 사소한 것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올리고 있었던 자신의 기준에 의한 탑이 무너질까 불안했고 휴직 기간이 가져올 경력의 단절을 우려하며 보내었다.

그동안 소홀했던 것과 알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절감하면서도 건강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채웠던 기간이었다.

그런 혼돈의 시간에 시낭송을 접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 문학소녀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수업시간 희곡의 해설을 읽는 단골 학생이었던 나는 시낭송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내 과거의 어느 시절 꽤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음을 안다.

바쁜 일과로 시낭송을 접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내게 시낭송이라는 세글자가 가슴 한복판에 들어왔다. 그렇게 내마음에 자리한 시낭송에 대한 열정으로 애가 탔고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포항에서는 시낭송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줄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때부터 재직시절의 갑절을 운전하며 도로 주행의 미터기의 숫자를 올린 내 발품은 시작되었다. 휴직 기간을 끝내고 잠시 몸담던 직장으로 복귀를 했지만 질병으로 인한 공백은 전에 추구하던 내 삶을 다시 흔들어 놓고 있었다. 암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정과 휴양이 필요했던 나는 전처럼 원하는 바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직업의 특성으로 항상 조심해야하는 육체의 부실이 동료들에게 피해로 남을까 하는 염려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고민 끝에 29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예퇴직,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이라고 했던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했던가. 두려웠던 퇴직이 과거의 내 잠재의식에 존재해왔던 시낭송과의 통로를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시낭송과 더 친해졌다. 시낭송은 내게 덤으로 살게 된 인생에서 만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처음 시작은 울산에서 양산으로 부산으로 서울로 ~ 그리고 시낭송가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 시낭송대회 출전을 위해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고 많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하나도 갖기 힘든 다섯 개의 시낭송가 인증서를 땄다.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르지 못한다고 했지만 즐기는 자는 미치는 자를 따르지 못한다는 요즘의 말처럼 현재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미친 듯이 시낭송에 빠져 있었던 기간이었다. 남편은 성치않은 몸으로 그렇게 장거리로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그런 염려들이 내 열정을 잠재우지 못했고 시낭송가로서 무대에 선 나에게 가족들은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주었다. 돌이켜보면 시낭송을 하면서 많이 울었고 또 많이 웃었다. 그동안 남에게 보이지 못했던 내 속마음도 이젠 조금씩 남들에게 내보이기 시작했고 남자들보다 말수가 작아 표현에 서툴렀던 내가 시낭송을 하면서 시낭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 이제껏 자신의 상처에만 아파했던 내가 어느 지점부터선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고 싶어졌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나같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낭송이 아직은 소수 관심있는 분야의 문학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지만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마음을 적셔줄 한줄기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낭송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6년 마지막 날 가졌던 시낭송봉사공연의 체험, 포항시낭송협회 연도발표회에서 함께 했던 팀 멤버들과 함께 '사랑 찾아 행복을 찾아' 라는 시낭송 공연을 기획했다. 함께 한 멤버들이 모두 적극적이서 난생 처음 치룬 시낭송 봉사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청송에 위치한 노인보호시설로서 1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었다. 지루해지기 쉬운 시낭송에 콩트와 노래로 변화를 시도하고 시설의 어르신도 함께 낭송하는 코너를 만들었더니 진행하는 한시간 내내 시설의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울고 웃으며 흡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봉사공연에 참여했던 6명의 멤버들이 더 많은 위안과 기쁨을 얻었노라는 소감들이었다. 이 때의 경험이 감정 표현이 없어 멍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찌 하면 좀 더 좋은 경험과 감동과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시낭송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관등 몇차례 시낭송 봉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시낭송 재능기부가 필요한 곳을 찾던 가운데 영덕 보건소에서 올린 치매예방센터 시낭송 프로그램 공지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도시와는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낭송으로 수업을 하였다. 글을 모르는 분들도 더러 계셨지만 길지 않고 어렵지 않은 시들을 골라 시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없애려 노력했고 약간의 체조를 겸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썼더니 어르신들이 어색해 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에 만족하시고 소녀 감성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영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봉사처를 구한 결과 시작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소개받았고 지인의 소개로 요양병원 두곳을 소개받아 6월부터 시낭송 수업을 시작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에게 어떻게 시를 전달할까 고민도 되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의 대한 감각은 일반인보다 훨씬 섬세하리라는 추측으로 내 목소리로 시낭송을 들려 드리고 따라 읽으면서 대화를 하고 시낭송 행사에서 했던 시들이나 좋은 글들을 읽어드리니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고요함으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시낭송에 동시로 된 동요도 같이 익혀보고 불러보면서 그들에게 시낭송 수업하는 한 시간이 어떤 잔잔한 파문을 던져주길 기대하면서 동심도 자극하고 재미를 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는 요양병원중 한 곳은 스크린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월 1회 병원프로그램으로 시낭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영상 자료나 노래 수업 자료를 ppt로 진행하면 이해도와 만족도, 참여도 또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시설의 장치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아시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고민해 만들어 간 수업자료를 보고서 많이들 좋아해 주신다. 한번은 일본인 98세 할머니가 쓰셨던 시 '약해지지마' 를 소개했던 때였다. 소녀같은 감성을 가지신 할머니 한분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같이 참여했던 요양보호사 간호보조실습 선생님들까지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 그럴 때는 시낭송으로 감동과 치유를 전해주고픈 내 의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 한가지 좋았던 것은 요양병원으로 시낭송 공부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과 함께 찾아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낭송과 노래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시낭송수업에서 반장, 부반장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 두분을 청해서 그동안 배웠던 시 한편을 낭송해주시길 청해서 공연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어르신들도 함께 하는 공연에 호응이 대단했다. 늘 그렇지만 그렇게 봉사를 끝내고 나면 봉사하는 우리가 더 충만하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된다. 그때 참여한 봉사자들도 모두 그랬다. 다른 한 곳의 요양병원 역시 월1회 진행하고 있는데 스크린과 마이크 시설이 없어 층별로 십여분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돌아가며 수업을 진행한다. 시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지만 대신 시를 읽으며 시를 통해 대화하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그려보게 함으로서 다른 효과를 얻게 되기도 했다.

이제껏 많은 생을 살아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시에 대해 무덤덤하시기도 하지만 시는 침해예방의 묘약으로 시를 외워보시라 적극 권유하고 싶다. 하루하루 무료한 삶의 연속인 어르신 몇은 공부했다고 뿌듯해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수업을 하면서 다음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때도 많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자료를 만들어 다음 시간에

활용하곤 하는데 앞으로도 수업자료를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좀 더 감동이 있는 수업으로 그 들의 행복지수를 업시키는 것으로 보람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음이 외롭거나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시 한줄이 그들에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인간의 가장 고급진 행복은 남을 도울때의 시너지다' 라고 누군가 그랬다는데 시낭송을 매개로 해서 상처받은 마음에 꽃이 피게 하고 누군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시낭송으로 행복을 나누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낭송으로 치유와 나눔을 실천해나가는 전도사가 되고자 한다.

"포항 행복마을"은 포항시 관내 마을을 선정하여 시민 · 사회단체 회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오지마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포항 행복마을 11호

일 자 : 2018. 6. 23(토)

장소 및 대상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1리, 61세대 936명

참 여 단 체 : 가위사랑봉사회, 둥지회, 롯데백화점 포항점, 미소짜장봉사회, 사랑그리다, 상도중학교, 선린대학교 제철학과, 수도방위사령부 포항전우회, 이마트봉사단, 위덕대학교 로타렉트, 작은바람회, 포스코기술연구원, 포항시시민모니터단, 포항의료원,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한동대학교 해비타트, 홍보단, 일반봉사자, 19개 단체 자원봉사자 265명

주 요 내 용 : 벽화그리기(500M), 마을회관 LED전등교체, 방충망교체(73개), 자장면나눔, 이미용 및 염색(20명), 지역 어르신 기초검진 및 의료상담, 주차안내, 봉사자안전관리, 다과 및 생수지원, 전통 낫 나눔(50개)

포항 행복마을 12호

일　　자 : 2018. 11. 10(토)

장소 및 대상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51세대 106명

참 여 단 체 : 구룡포지역자원봉사대, 둥지회, 미소짜장면봉사회, 부학사랑회, 사랑 그리다, 수도방위사령부 포항전우회, 위덕대학교 로타렉트, 포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작은바람회, 한동대학교 해비타트,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홍보단, 한동대학교 해비타트, 형산강환경지킴이, 개인봉사자 14개 단체 자원봉사자 171명

주 요 내 용 : 벽화그리기(270m), 보일러점검(18세대), 방충망교체(83개), 돋보기맞춤(66명), 물리치료, 자장면나눔, 다과 및 생수지원, 봉사자안전관리, 봉사활동 취재 등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자원봉사 거점센터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사랑하고 소중히 지키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민 스스로 운영하는 (읍 · 면 · 동)자원봉사거점센터로 자원봉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으로 상담, 실적관리, 수요처연계 등 자원봉사 욕구해소로 마을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이다.

추진 방침

- 주민센터 내 거점센터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읍면동 복지HUB와 자원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활동지원

추진 개요

연번	읍면동	개소일	회원수	상담가	전문봉사팀	비고
1	오천읍	2016.09.26	183명	29명	11팀	
2	우창동	2017.08.16	29명	29명	3팀	
3	장량동	2016.07.08	15명	15명	1팀	
4	흥해읍	2018.11.13	32명	32명	2팀	
5	효곡동	2019년 중	25명	·	·	

- 운영시간 : 월~금(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 운영장소 : 주민센터 내 설치
  (현판, 컴퓨터, 전화, 상담테이블 등)
- 활동인원 : 오전 · 오후 각 2명
- 주요활동 : 매월 CLEAN DAY운영, 자원봉사 관련 상담 및 활동배치 자생단체 활동실적 관리,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 복지HUB팀과의 협업활동

거점센터 운영

거점센터 운영

거점센터 임원회의

행정기관–행사지원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활동

[테마형] 우리마을 깨끗한 거리만들기

[테마형]재능기부–수세미뜨기, 팔찌만들기

읍·면·동 지역자원봉사대

남구 지역자원봉사대

구룡포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격일제로 첫째, 셋째 동호사 요양원, 석병 요양원에서 압봉, 마사지 봉사활동 및 웃음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일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화요일 연일읍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며 매일 2인 1조로 이루어 3교대로 연일복지회관 체력단련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오천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일 야간 순찰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 순찰을 실시하며 매월 2회 청소년 유해업소 및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송면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대송다목적복지회관에서 안내와 헬스장 청소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매월 격주 수요일에 지역 내 독거 어르신 16가정에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한다.

동해면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금요일 독거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며 분기별로 환경정화 활동과 집 수리 및 독거 가정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상대동지역자원봉사대

관내 경로당에서 연 3~5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매월 2회 불우이웃, 독거 노인을 위해 요리를 하여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도동 지역자원봉사대

지역 내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나눔의 집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와 청소년 정화 활동 및 포항시 행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철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넷째주 화요일 나전복지마을과 둘째주 토요일 온정마을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를 진행하며 분기별로 보육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송도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월요일 송림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식당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효곡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2회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매주 토요일 마사지를 통한 건강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이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경로당 식사 대접 및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흥해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둘째, 셋째주 관내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22일에 동빈동 부뜻가, 중앙파출소 인근 꿈틀로, 우체국 실개천 거리의 환경정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학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2회 양학동 관내 독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에 반찬 배달을 지원하며 백합경로당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국수를 만들어 대접하고 있다.

죽도동지역자원봉사대

매주 화요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의 이불빨래를 진행하며 매월 2회 집 청소 및 동네 정화 활동 외에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용흥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금요일 주민센터와 매월 격주 보은의 집, 실버하우스에서 손 마사지, 추봉, 압봉으로 건강관리 및 말벗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1~2회 경로당에 방문하여 말벗, 마사지도 진행한다.

우창동 지역자원봉사대

경로당 3곳에서 매월 격주 월요일에 어르신 건강 증진 활동으로 체조 및 음악 봉사를 진행하며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창포복지관에서 급식 지원을 돕고 있다.

두호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1회 송림노인복지관 무료 급식소 주방 보조 활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 장애인, 경로당 어르신 나들이 활동 및 농가 일손 돕기 활동도 진행한다.

장량동지역자원봉사대

매주 3회 장량동 나눔 냉장고를 통한 지역 소외계층 및 독거 노인을 위한 반찬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매월 1회 클린 데이, 불법 투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강사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회에서 학교, 관공서, 사회복지 시설 등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1365 회원가입, 자원봉사 이념 및 특성,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의 진행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이런 정보를 드려요

1. 자원봉사의 기본 이념 및 특성
2.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및 혜택
3.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및 활동 참여 절차 안내
4.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 지켜야 할 에티켓
5. 자원봉사 활동 참여 소감 나누기를 통한 자원봉사 정보 공유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이렇게 신청하세요.

*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일정 조율 (248-8742~3)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실 No.7 자원봉사 기초교육 신청서 작성
* 팩스(248-8744) 혹은 이메일 (ph1365@hanmail.net)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 일정에 맞춰서 교육진행(각 반별로 자원봉사 강사회 소속 강사 1명씩 배치)

2018 강사회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적

* 활동장소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대도초등학교, 대해초등학교, 동지여자중학교, 송도중학교, 영신중학교, 포항여자중학교, 흥해중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주민센터(오천읍, 동해면, 두호동, 양학동, 우창동, 상대동, 해도동, 효곡동), 장량동, 새마을금고
* 활동횟수 : 51회
* 활동인원 : 46명 * 수료인원 : 4.181명 (2018.09.30.기준)

■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

7. 24(월)~8. 11(금)까지 포항시 9개 읍·면·동 지역자원봉사대(오천읍, 동해면, 두호동, 상대동, 양학동, 우창동, 장량동, 해도동, 효곡동)와 함께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마을단위 중심으로 지역자원봉사대와 함께 청소년들이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지역주민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 욕구를 해결하고 체험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총 27회(15일) 운영기간에 걸쳐 청소년 897명, 지역자원봉사대 188명, 재능기부강사 145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기초교육, 환경살리기 및 정화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지역사회에 기증할 만들기 프로그램(천연염색손수건, 천연비누, 천연로션, 천연치약, 모기퇴치제, 부채 등), 핸드마사지, 장애체험, 기관방문(경로당, 요양병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등)봉사활동 등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마을학교 운영자교육

6.23(금)

두호동 마을학교

7.23(월) ~ 25(수)

동해면 마을학교

7.23(월) ~ 25(수)

상대동 마을학교

7.24(화) ~ 26(목)

장량동 마을학교

7.24(화) ~ 26(목)

효곡동 마을학교

7.25(수) ~ 27(금)

7.30(월) ~ 8.1(수)

양학동 마을학교

해도동 마을학교

8.1(수) ~ 3(금)

8.6(화) ~ 8(수)

우창동 마을학교

오천읍 마을학교

8.8(수) ~ 10(금)

마을학교 평가회

9.4(수)

■ 일상생활봉사 프로그램

프로젝트 리더를 통해 기존 수요처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프로젝트 리더란? 자원봉사센터의 파트너로서 재미있는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멘토**이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핸드마사지 & 네일아트]

1. 활동일자 및 장소
   - 매월 둘째 토요일(10:00~12:00) 좋은선린요양병원 지하 1층 희망실
   - 매월 셋째 토요일(14:00~16:00) 해도요양병원 1층 강당
2. 활동내용 : 노인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께 일일 손자 · 손녀가 되어 핸드마사지와 네일아트하는 봉사활동
3. 추진실적 : 총 17회 / 참여인원 480명 4. 참여방법 :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개별신청

■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 우리마을 경로당 클린데이 운영

수요처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매주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욕구를 해소하고자 포항시 지역자원봉사대 및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 리더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접근성 향상과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 활동일자 : 매주 토요일
2. 활동장소 : 두호동(두무치), 상대동(시외버스터미널), 우창동(마장지), 중앙동(학산경로회관), 해도동(포항운하 산책로), 효곡동(그린단지)
3. 활동내용 : 환경정화활동, 청결활동
4. 추진실적 : 총 42회 / 참여인원 1,162명
5. 참여방법 :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개별신청

해도동지역자원봉사대

포항운하 산책로 환경정화활동

상대동지역자원봉사대

상대동 일원 환경정화활동

우창동지역자원봉사대

우창동 마장지 일원 환경정화활동

두호동지역자원봉사대

두호동 두무치 일원 환경정화활동

효곡동지역자원봉사대

효곡동 그린단지 일원 환경정화활동

중앙동재향군인여성회

우리마을 경로당 클린데이
(학산경로회관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 포항시 자원봉사 모범학교 운영

자원봉사 모범학교 인증제 도입을 통해 포항시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담당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교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및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욕구를 해소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모범학교가 되려면?(자원봉사 모범학교 자격요건)
 – 자원봉사 기초교육 수료, 자원봉사 활동체험,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충족요건(전교생 70%)에 해당하는 학교
* 포항시 자원봉사 모범학교가 되면?
 1. 학교별 모범학교 현판 및 현수막 제작 2. 학년별 자원봉사 우수학생 표창 3. 모범학교 중 우수학교 표창
 3. 자원봉사센터 울림 소식지 내 모범학교 소개 4.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및 프로그램 연계
 5. 모범학교 자원봉사의 날 실시

2017 자원봉사 모범학교 현판 및 우수학생 상장 전달식

포항대동고등학교

포항중앙고등학교

포항예술고등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가족자원봉사단 활동소개

나눔가족

활동장소 : 서림지역아동센터-일상생활지원
구성인원 : 14가족, 35명

사랑가족

활동장소 :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도서관 업무보조
구성인원 : 8가족, 19명

청결가족

활동장소 : 엘림실버빌-일상생활지원
구성인원 : 16가족, 55명

함께가족

활동장소 : 연일노년자원봉사회 무료급식소 - 급식지원
구성인원 : 12가족, 44명

희망가족

활동장소 :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도서관 업무보조
구성인원 : 11가족, 33명

2018년 테마형가족프로그램 이모저모

4월 아이와 함께 만드는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5월 아이와 함께 만드는
"자원재활용 생필품 만들기"

6월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교육
"내 아이 마음보기"

8월 아이와 함께 만드는
"향기톡톡! 천연 디퓨져 만들기"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자원봉사단~~

가족자원봉사단은 매월 2, 4주 가족자원봉사의 날로 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주 토요일은 기존가족과 함께 합류하여 시설 및 기관 정기적인 봉사활동, 매월 4주 토요일은 2인 이상의 가족 및 부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회성 테마형 가족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및 부부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새로운 가족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아파트자원봉사단

2014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하여 조직된 아파트자원봉사단! 우리 아파트 내 이웃 간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할 아파트자원봉사단을 연중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 아파트자원봉사단의 주요활동

○ 활동내용

- 월1회 주말을 활용하여 아파트 자원봉사의 날 운영을 통해 성인인 아파트자원봉사단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 먼저 인사하기, 아파트 통로 내 금연,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활동
- 방범 · 보안 활동 등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활동
- 폭우 · 폭설 등 재난재해 시 아파트 내외 피해복구 활동

○ 활동혜택

- 아파트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발대식 포함 3차년 활동재료 지원

우현풍림아이원 아파트자원봉사단

더휴아파트자원봉사단

양학도뮤토 아파트자원봉사단

우현삼도뷰엔빌W 아파트자원봉사단

양덕삼구트리니엔1차 아파트자원봉사단

지곡삼성그린빌라 자원봉사단

2018년 올해 신규 아파트자원봉사단

9호 양덕삼구트리니엔4차
아파트자원봉사단 발대식(201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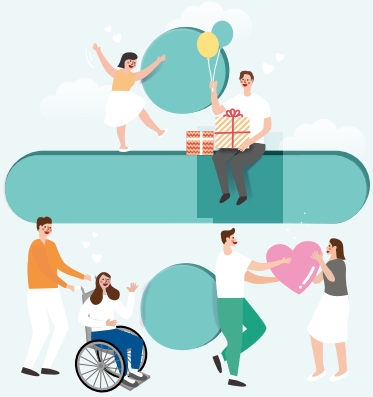
10호 e편한세상 양덕2차
아파트자원봉사단 발대식 (2018. 6)

11호 e편한세상 양덕1차
아파트자원봉사단 발대식(2018. 6)

1시민 1재능나눔
자원봉사를 위한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양성 교육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교육재료비만 내면 최소 7회이상의 질높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후 월 1회 1년이상 내가 배운 것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통해 여러분도 재능나눔 자원봉사자가 되어보세요!

상 반 기

실버펀 놀이지도사 과정(7회, 21시간)

일정 : 3.6(화)~4.17(화) 10:00~13:00
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쉽고, 즐거운 놀이 방법
강사 : 함께 꿈꾸는 공간 위탁교육기관 신춘숙 대표

전래놀이체험지도사 과정(8회, 16시간)

일정 : 3.9(금)~4.3(화) 14:00~16:00
내용 : 다양한 전래놀이 및 체험지도 방법
강사 : (사)한국예절녹색교육원 추연태 원장

노인미술치료 과정(10회, 20시간)

일정 : 3.12(금)~4.25(화) 10:00~12:00
내용 : 노인상담 및 다양한 노인미술치료기법
강사 : 포항미술치료교육센터 서종숙 센터장

핸드지압마사지 프로젝트 리더 양성교육 과정 (10회, 20시간)

일정 : 3.19(월)~4.21(토) 10:00~12:00
내용 : 핸드지압마사지 지도방법
강사 : 피부연구소 김영진 원장

그림책교육지도 과정(8회, 24시간)
일정 : 3.22(목)~5.10(목) 10:00~13:00
내용 : 좋은 그림책 기준 및 읽어주는 방법
강사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포항시지회 이진영 강사

상체&핸드지압마사지 과정(10회, 20시간)
일정 : 4.23(월)~5.29(화) 10:00~12:00
내용 : 뻐근한 어깨와 손과 팔이 시원해지는 마사지 방법
강사 : 피부연구소 김영진 원장

하 반 기

실버펀 놀이지도사 과정(10회, 20시간)
일정 : 3.6(화)~4.17(화) 10:00~13:00
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쉽고, 즐거운 놀이 방법
강사 : 함께 꿈꾸는 공간 위탁교육기관 신춘숙 대표

그림책지도사 과정(12회, 36시간)
일정 : 9.6(목)~11.22(목) 10:00~13:00
내용 : 그림책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우고
좋은 그림책 읽는 방법
강사 : 두근두근 그림책연구소 정수경 소장

발관리사 자격증 전문과정(12회, 24시간)
일정 : 10.15(월)~11.21(수) 10:00~12:00
내용 : 발의 반사구를 자극하는 마사지 방법
강사 : 대한발관리사협회 포항시지부 김영진 지부장

알쓸다교

알아두면 쓸데있는

2018 자원봉사 시민대학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다양한 교육으로 내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접목해서 좀 더 고품격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육!! 내년에도 자원봉사 시민대학은 계속 됩니다. 2019 coming soon!!

상 반 기

정리수납

일정 : 2018. 3. 7(수) 14:00~16:00
내용 : 봄맞이 옷장정리 달인 도전하기!
강사 : (사)한국정리수납협회 강해경 강사

상체마사지

일정 : 2018. 4. 6(금) 14:00~16:00
내용 : 뻐근한 어깨와 목에서 탈출하기!
강사 : 피부연구소 김영진 원장

전래놀이체험

일정 : 2018. 4. 11(수) 10:00~12:00
내용 : 다양한 실전 제기놀이
강사 : (사)한국예절녹색교육원 추연태 원장

하 반 기

실버펀 놀이

일정 : 2018. 5. 2(수) 10:00~13:00
내용 : 실버펀 놀이지도 개요 및 실전놀이 소개
강사 : 함께 꿈꾸는 공간 위탁교육기관 시춘숙 대표

정리수납

일정 : 2018. 8. 7(화) 10:00~12:00
내용 : 복이 들어오는 정리수납
강사 : (사)한국정리수납협회 강해경 강사

그림책 심화 – 주제특강

일정 : 2018. 8. 14(화) 10:00~12:00
내용 : 시대별로 보는 칼데콧 수상작의 특징
강사 : 두근두근 그림책연구소 정수경 소장

자원봉사 리더교육 –
잉여인간의 위기에 처한 인류와 쓸모의 재구성

일정 : 2018. 9. 7(금) 14:00~17:00
내용 : 새로운 노동체계와 자원봉사의 원리
강사 :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이성록 교수

상체경락마사지

일정 : 2018. 9. 18(화) 14:00~17:00
내용 : 막힌 몸 콱 뚫리는, 쉬운 경락마사지
강사 : 대한경락사협회 포항시지부 김영진 지부장

실버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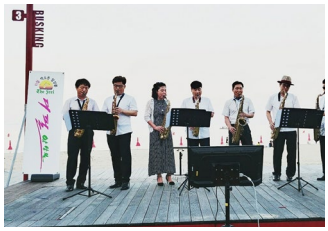
일정 : 2018. 10. 10(수) 10:00~13:00
내용 : 실버펀 놀이지도 개요 및 실전놀이 소개
강사 : 함께 꿈꾸는 공간 위탁교육기관 신춘숙 대표

재능나눔자원봉사단

꿀잼놀이봉사단
노인 기관 및 시설,
경로당에서 치매예방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 진행 활동

포항 농악 누리빛난타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
난타 문화예술 공연활동

뱃머리효사랑가요예술단
노인 기관 및 시설,
요양병원에서 가요 및
마술 공연활동



더 필 앙상블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색소폰 및 문화예술
공연활동

그림마음
노인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미술치료 활동 및
말벗활동

**(사)하모니카리더스
포항지부**
지역사회 및 노인 기관
및 시설에서 하모니카
문화예술 공연활동

색깔놀이
노인 기관 및 시설에서
치매예방 노인미술활동

색동이
노인 기관 및 시설에서
치매예방 종이접기 활동

맛동산
영어도서관 및 포은중앙
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을
찾아가 영어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

효자손봉사단
노인 기관 및 시설에서
상체 및 핸드지압
마사지 활동

으라차차
노인 기관 및 시설,
경로당에서 치매예방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
진행 활동

양지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과
통기타와 포크음악
모금공연활동 및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 개선활동

고운손 프로젝트 리더(PL)와 함께 핸드지압마사지 배워요!

주말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지역에서 의미있는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고운손, 핸드지압마사지 프로그램!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서 고운손이라고 검색하면 동해면, 오천읍, 우창동, 장량동, 중앙동, 해도동 6개 지역의 각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직접 배운 핸드지압마사지도 해드리면서 말벗도 하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손 프로젝트 리더(PL)는 핸드지압마사지 프로젝트 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평일 1회, 주말 1회 총 10회과정의 교육을 통해 핸드지압 마사지를 일반성인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성됩니다.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하고 싶은 분, 자원봉사 프로젝트 리더가 되고싶은 분은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도착하면 고운손 프로젝트 리더(PL)의 진행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됩니다.

♡참여자간 인사나누기 → 핸드지압마사지 실기교육 →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말벗하며 핸드지압마사지 하기♡

우창동 – 은빛빌리지

오천읍 – 오천행복요양원

동해면 – 동해요양원

해도동 – 가족사랑요양원

중앙동 – 광명요양병원

장량동 – 유성요양병원

청소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

2018 한국자원봉사의해를 맞아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이그나이트 대회에 세명고등학교 김진경 최우수, 전자여자고등학교 박현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대회는 지역 내 중 · 고등학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사례 수기공모의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소년 14명이 칠곡군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대회이다.

봉사단체 소개

WE ARE VOLUNTEERS

포스코패밀리실버Dream자원봉사단

활동장소-포항시일대
포항시관내 환경정화활동 및 장애인시설 세탁지원,
바둑재능기부 등 활동 진행

대한안전연합 포항지역본부

활동장소-포항시일대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
처치 지식 및 기능을 전달하기 위한 "응급처치교육
(기도폐쇄처치법,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사용법)" 진행

도슨트봉사단

활동장소-포항시립미술관
관람객에게 미술관의 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품을 설명하는 '전시 해설사' 활동

포스텍

활동장소-영일중학교
포스텍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수학,과학 등
학습지도와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 활동진행

해몰이풍물단

활동장소-포항일대
경로당, 지역행사 등 포항시민을 위해 사물놀이
공연활동 진행

영일만문화예술단

활동장소-장미공원 및 해도운하 등
매주 장미공원, 해도운하, 영일대해수욕장 무대에서
색소폰, 노래, 민요, 벨리댄스 등 문화공연 활동진행

포항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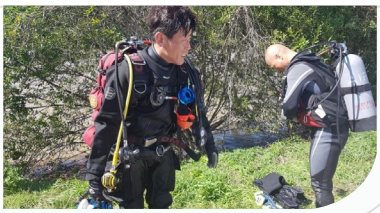
활동장소-동네경로당 대학으로 지정된 경로당
웃음치료, 핸드마사지, 주산, 종이접기,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진행

포항시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장소-포항시 남구일대
매주 1회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교통지도
및 안전캠페인 활동 진행

포항구조대

해양경찰과 협조하여 수상구조를 전문으로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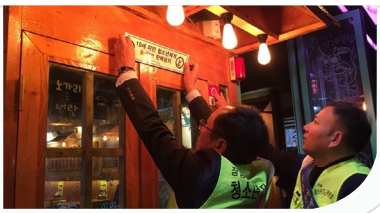


사랑의밥차

활동장소-전국일대
소외계층 및 장애인, 노인 대상으로 무료식사대접과
함께 공연활동 진행

장량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장소-포항일대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순찰활동 진행



환장봉사단(환여장량봉사단)

활동장소-포항 환여, 장량동 일대
환여동 및 장량동 일대의 환경정화활동 및 분리수거를
통해 깨끗한 동네만들기 활동 진행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

열심히 봉사한 당신, 행복하게 누려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행복통장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온 · 오프라인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통장 정리기 설치장소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포항시청 안내데스크,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오천읍 · 장량동자원봉사거점센터, (읍 · 면 · 동)자원봉사거점센터 확대 예정

경상북도 자원봉사자증

- **발급대상** : 봉사활동실적이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준 비 물** : 증명사진(3x4) 1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재발급 기준 : 카드발행일 기준 1년간 누적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경상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경상북도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의 상품 또는 이용금액을 약정된 범위내 할인해주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 (전년도 11월 1일 ~ 당해년도 10월 31일)

자원봉사활동시간	30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	7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칭호	동장	은장	금장	봉사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GOLD CARD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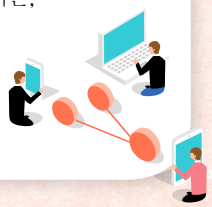
○ **발급기준** : 전년도 활동시간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준 비 물** : 증명사진(3x4) 1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재발급 기준 : 전년도 활동시간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감면 · 할인 내용** : 포항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 등 중복 감면 불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추진기간** : 2018. 5. 1 ~ 2019. 4. 30
○ **계약방법**
- 중앙센터가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각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
- 보험기간 : 2018. 5. 1. 00:01 ~ 2019. 4. 30. 24:00
- 담보구성

담보	가입금액 (원)	담보	가입금액 (원)
상해사망(15세미만제외)	200,000,000	골절치료비	500,000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00,000	식중독보상금	1,000,000
상해후유장해	200,000,000	얼굴성형비용	5,000,000
골절수술비	500,000	특정전염병보상금	1,000,000
화상수술보상금	500,000	성폭력범죄보상금	10,000,000
의사상자 상해위험	200,000,000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000,000
상해입원일당	50,000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00,000,000
자원봉사배상책임	30,000,000	구내치료비	20,000,000
화상진단비	500,000	구내치료비 확장보상	20,000,000
상해통원일당	30,000		

○ **보상청구절차**
- 자원봉사자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 제출서류 : 보험청구서, 진료비 및 약제비영수증, 진단서, 입 · 퇴원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기타문의 : 류미선 담당(054-248-8742)



2018년 신규 할인가맹점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경상북도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의 상품 또는 이용금액을 약정된 범위내 할인해주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 업체명 : 내눈에 콩깍지
* 할인율 : (일부품목) 500원 할인
* 주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21

* 업체명 : AISLE(아일)
* 할인율 : (일부품목) 현금10%, 카드5%
* 주 소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100-7번지

* 업체명 : the clover(더클로버)
* 할인율 : (일부품목) 음료전체 20%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189

* 업체명 : UA컨벤션
* 할인율 : 웨딩, 상설뷔페 사전협의
*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이로 18

* 업체명 : 남자머리
* 할인율 : (일부품목) 파마,염색 현금10%
* 주 소 : 포항시 북구 우창로20 상가동 1층 109동 110호

* 업체명 : 머리하는날
* 할인율 : (전체품목) 현금 10%
* 주 소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23번길 9

* 업체명 : 보떼화장품 양덕점
* 할인율 : 카드 10% (단, 현금시 추가 할인)
* 주 소 : 포항시 북구 양덕로 48

* 업체명 : 에제르카페
* 할인율 : 전체품목 10%
* 주 소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학로 1889-29

* 업체명 : 웰빙목욕탕
* 할인율 : 전체품목 10%(현금시에만적용)
* 주 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9-3

* 업체명 : 이용범구룡포상점과메기
* 할인율 : (전체품목) 카드5%, 현금 10%
* 주 소 :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 3

* 업체명 : 청하팜핑관광농원(비손농장)
* 할인율 : (전체품목) 카드5%, 현금 10%
* 주 소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26-1번지

* 업체명 : 현헤어아트
* 할인율 : (전체품목) 현금 10%
* 주 소 :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번길 29

언론에 비친 포항시자원봉사센터

2018년도 6월 23일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1리에서 포항행복마을 11호 탄생을 축하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행복마을 11호서 재능봉사〉

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권오성)에서는 지난 23일 북구 송라면(면장 이호용) 지경1리에 '포항 행복마을 11호'를 탄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 4~6월 2달간 자원봉사활동 소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업 확정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 맞춤형 행복마을을 성공적으로 탄생시켰다.

사랑 그리다(회장 김현국) 벽화봉사단과 자원봉사자130명은 지경1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골목 500m에 등대, 해녀, 바다속 풍경 등 예쁜 벽화를 그렸다.

포스코기술연구원은 전통 낫 나눔, 포항의료원은 거동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검진, 미소짜장면봉사회의 짜장면 나눔 등을 펼쳐졌고, 행사 안전과 교통안내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포항전우회도 참여했다. 이호용 송라면장은 "행복마을 11호 탄생은 생업에 바쁜 가운데서도 재능기부해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서 도와주신 덕분이며, 또한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2018년도 8월 15일

〈포항 스틸러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MOU 체결〉

매년 1회 포항 스틸러스 홈 경기때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프로축구단 포항 스틸러스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항 스틸러스는 매년 1회 홈 경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갖기로 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이날 전북과의 홈 경기에 자원봉사자 400명을 초청해 경기 관전, 시축, 경품 추첨, 자원봉사센터 홍보영상 상영 등을 진행했다. 권오성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지진 극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포항 스틸러스가 시민구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주도 사단법인으로 힘찬 출발〉

2018년도 11월 5일

경북 포항시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포항시는 5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법인 설립 발기인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법인 설립취지문 채택과 법인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총회 결과 사단법인의 초대 이사장은 조규용 ㈜케이알티 사장이 선임됐다. 이날 선임된 조규용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 윤리로서 인간존중의 시민문화 운동"이라며 "자원봉사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선진시민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포항시자원봉사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15 지진 극복의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으며 평소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회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법인 허가와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에는 사단법인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가 설립돼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시민이 체감하는 최고의 자원봉사 선도도시로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안녕 안부 안전 안심

Re Action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웃과 단절되고, 불안으로 위협받는 우리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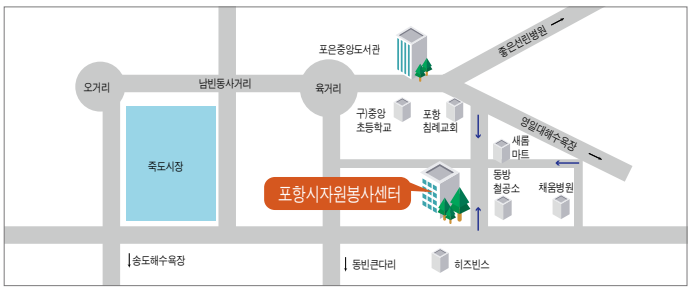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안녕한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로 행동하는 전국민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한 사회를 위한 리액션, 전국민의 자원봉사로

'안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포항YMCA
포항시자원봉사센터

37722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46번길 14(동빈1가)
Tel_ 국번없이 1365, 054)248-8742~3
Fax_ 054)248-8744
Mail_ ph1365@ipohang.org
http://phvc.pohang.go.kr